

# 섬진강 두꺼비 산란지 축소·변형... 복원 시급

## 습지 메달라 우수관로서 폐사 환경단체 “개발행위로 파괴돼”

개발 행위 등으로 메달라가는 광양 섬진강 지역 두꺼비 산란지가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전남녹색연합에 따르면 광양시 다압면사무소 인근 입야에 715㎡(217평)규모의 두꺼비 산란 습지가 형성돼 있다.

2년 전 이 인근에 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우수로가 만들어졌고, 산에서 내려온 물길이 바뀌면서 습지는 급속도로 메마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3월 산란지를 찾는 두꺼비들은 메마른 습지 대신 우수관로에 알을 낳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수관로의 경우 폭이 깊고 수량이 일정치 않아 알이 메마르거나 새끼가 우수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이 산란지에 알을 낳으러 오는

두꺼비떼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사유지를 매입해 복원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과 경남 하동을 가로지르는 섬진강(蟾津江)은 ‘두꺼비 섬’자를 따와 지어졌다. 광양 진상면, 다압면도 두꺼비와 연관된 지명으로 섬진강 일대는 두꺼비와 인연이 깊다.

광양시 다압면부터 진월면까지 이어지는 섬진강 강줄기에는 두꺼비 산란지 10여 곳이 있었지만 개발 행위 등으로 점차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환경단체는 설명했다.

사라지는 산란·서식지에 대해 보호·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자연거길 도로 개발,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두꺼비와 연이 깊은 오래된 서식지들이 변형·파괴되고 있다”며 “두꺼비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회귀해 알을 낳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서식지 복원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양시 다압면사무소 인근 입야에 715㎡(217평)규모 두꺼비 산란 습지가 조성돼 있지만 개발 등으로 파괴돼 있어 보호·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양시 제공

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계획한 복

원 사업은 없다”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

인 이 산란지를 매우거나 개발해도 제지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조진용·광양-안영준 기자

## 신기마을 ‘으뜸마을 만들기’ 조경수 식재

### 광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양시 광양읍은 지난 18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마을 주민들과 광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삼익아파트 단지 내 황금사철나무 등 조경수 300여 그루를 식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민 주도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사업으로 광양읍에서는 올해 신규 15개 마을, 2년차 9개 마을, 3년차 13개 마을 총 37개 마을이 선정됐다.

사업 2년차를 맞이한 신기마을은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마을 경관

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올해는 광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황금사철나무 및 홍가시 등을 식재했다.

최기자 신기마을 이장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팔을 걷어붙여 준 광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과 소통하며 성숙한 공동체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균 광양읍장은 “분주한 일상에서도 마을 가꾸기 사업에 적극 참여해준 주민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 공동체와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18일 신기마을 주민들과 광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삼익아파트 단지 내 황금사철나무 등 조경수 300여 그루를 식재했다.

광양시 제공

## 와우생태호수공원에 메타세쿼이아 77주 식재

광양 와우생태호수공원 산책로가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난다.

21일 시에 따르면, 공원 내 산책로가 노후화로 인해 노면 불량, 수목 생육상태 저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해 산책로 보수와 메타세쿼이아 식재 등 경관개선에 나섰다.

와우생태호수공원 내 산책로는 지난 2011년에 폭 2m, 길이 445m의 산책로와 왕벚나무 식재로 조성됐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산책로를 보수하고,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대표 친환경 수

목 중 하나인 메타세쿼이아 77주를 추가로 심는다. 와우생태호수공원은 주변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업완료 시 시민들은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신 공원과장은 “이번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걷고 싶은 산책로’가 조성돼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새로운 녹색 공원 명소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옥곡면과 여수시 지역경제과 공직자 24명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참여했다.

광양시 제공

## 옥곡면, 여수시와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

광양시 옥곡면(면장 김치곤)과 여수시 지역경제과(과장 조용연) 공직자 24명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에서 공직자들은 1인 10만원씩, 총 240만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액은 전액 지역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기부자에게 지급되는 답례품들은 지역 내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옥곡면은 이번 상호 기부를 시작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 출향인사, 자매결연 마을 및 기업 등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제도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치곤 옥곡면장은 “교차 기부에 동참해 주신 옥곡면과 여수시 지역경제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차 기부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전남 내 여러 지역과의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에 기여

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주소지 제외)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광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금 사업으로 ‘국보 광양 중흥상성 쌍사자 석 등 제자리 찾기’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 7.6% 상승

### 여수항만공사 1분기 평가

광양항의 올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2024년 1분기 누계 광양항 컨테이너 잠정 물동량이 전년 1분기 대비 7.6% 상승한 48만TEU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년 대비 10.3% 증가했던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월 한국 설 연휴 및 중국 춘절 연휴에

따른 조업 중단으로 0.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주춤거렸다.

하지만 3월 들어 생산 및 조업이 재개되며 전년 대비 11.5%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박성현 사장 취임 이후 ‘발로 뛰는 마케팅’ 및 ‘1개 선사 1개 + 서비스 유치 캠페인’ 추진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유럽, 중남미 등 8개의 신규 서비스 유치 성공도 물동량 증가세에 힘을 보탤다.

광양항은 신규 원양 서비스 유체에 힘

입어 환적 물동량이 전년 1분기 대비 약 50% 증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및 해운·물류대란 사태로 촉발된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세를 반전시키고 있다.

수출입 물동량도 2.2% 증가했다. 광양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내수 진작에 주력하는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동남아 지역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박성현 사장은 “공사가 석유화학, 철강으로 대표되는 광양만권 산업구조대전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컨테이너의 기존 화물 포트폴리오 외에도 이차전지, 신소재 등 친환경 융복합 화물을 적극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